

연봉 1억 넘는 노조 전임자도 있다

2006~2008년 1인당 평균 6,327만원... 위원장 10명 중 4명 임원급 대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부 대기업의 노조 전임자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근 노조가 있는 매출액 상위 35개사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6~2008년 노조 전임자의 평균 임금 실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작년 해당 기업의 노조 전임자 중에서 최대 연봉은 1억7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인 3천168만원의 3.4배에 달하는 수

준이다. 작년 해당 기업의 노조 전임자 1인당 평균 연봉은 6천327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일반 근로자가 초과 근무 시간에 비해 초과 근무수당을 받는 데 비해, 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일정 시간의 초과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침체로 작년 말부터 잔업과 특근이 줄면서 현장 근로자의 수당이 월평균 100만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인정받

았다는 것이다. 파업기간 일반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손실이 있었지만, 노조 전임자는 임금이나 초과 근무 수당을 변함없이 받는가 하면 유류비와 차량은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위원장 10명중 4명은 임원급 대우를 받으면서 그랜저 등 전용차량과 유류비를 무제한으로 지급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부사장급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들 기업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급하는 대가이며, 이러한 혜택 때문에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16년간 노조 전임자로만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러한 폐단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법안이 13년간 유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칙대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을 기준으로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된 전체 임금 4천288억원은 대졸 신입사원 1만9천944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영암 '자색무' 맛보세요

2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 채소매장에서 (주)농협유통 관계자들이 영암에서 올해 첫 출하된 자색무와 함께 몸에 좋은 자색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대출 연체이자 부당징수 제도

대출 연체 기간을 마음대로 정해 연체 이자를 더 받아온 은행권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은행들이 대출 연체 기간의 산정 방식을 민법상 원칙에 맞게 정해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83개 금융회사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 연체 이자를 157억원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은행이 128억원, 9개 보험사가 13억원, 67개 저축은행이 16억원이었다. 연체 기간은 대출금 만기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은 것이다. /연합뉴스

대출이자도 못갚아...

광주·전남 올 빛 조정 신청자 작년보다 1,943명 늘어

대출이자도 갚지 못해 신용회복 기관에 이자감면이나 채무재조정 등을 신청한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1만1천271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0.8%인 1천943명이 늘었다.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광주지부를 찾은 사람들은 2007년 8천400명이던 것이 지난해 9천328명으로 11.0%(928명)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 11개월만

에 20%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채무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이자감면을 요청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007년 4천872명에서 지난해 5천758명, 올 들어 6천451명으로 해마다 12~18%씩 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중에서 채무재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2007년 1천473명이던 것이 지난해 2천731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11월까지 2천764명으로 지난해 실적에 육박했다.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1년이상 성실하게 이행하

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주는 소액대출도 지난해 475명에 13억7천500만원에서 올해는 벌써 909명에 26억9천만원을 기록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김기성 광주지부장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2003년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지역민은 6만여명에 달하고 소액대출 액수도 43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 11월 거래·대금 모두 감소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11월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09년 11월 투자자 주식거래 실적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11월 거래량은 5억2천272만주로 전월보다 3천450만주(6.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도 2조3천287억원으로 전월보다 7천508억원(24.38%)이 감소했다.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 2.43%(10월, 2.61%), 거래대금은 1.89%(10월, 1.96%)로 전월보다 다소 줄었다.

지역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판 종목은 거래량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

에서 배명금속(769만주), 케드콤(605만주), 케이씨오에너지(405만주), 하이닉스(388만주), 대우부품(346만주) 등의 순이고 코스닥 시장에선 제이투엔터(1천601만주), 제너비오믹스(959만주), 파루(916만주), 에듀박스(904만주), 아리진(899만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이닉스(746억원), 효성(706억원), 삼성전기(461억원), LG화학(450억원), 포스코(413억원) 등의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선 파루(323억원), 웰크론(223억원), 제이투엔터(210억원), 한국베림(203억원), 중앙백신(157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법정간 광주 남구금고 농협, 무효 가치분신청

광주시 남구청 금고유치를 둘러싼 농협광주지역본부와 광주은행간 경쟁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2일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종순)는 남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광주은행을 구 금고로 선정할 것과 관련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심의위원회 효력정지 및 무효 가치분 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농협광주본부 관계자는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등 심사기준을 바꾸려면 재공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했다.

남구도 구 금고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심의 과정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종태·김형호기자 jile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www.kit.com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서울사무소 (02) 227-9970
 수원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52-9200
 울산점 (063) 851-2432

www.kit.com

대호온돌나라

출장대는 지금이 구입적기입니다.

1인용 온돌침대 1,200,000원
 2인용 온돌침대 1,500,000원
 3인용 온돌침대 1,800,000원
 4인용 온돌침대 2,100,000원

광주 신서구백화점 지하 1층 대호온돌나라 ☎ 062-360-1902

www.kit.com

초절전 귀뚜라미 거꾸로 냉난방기

8월 70% 할인

062) 252-2900